

# 복지부, 건강검진기관 삼진 아웃제 도입

## 건강검진기본법 개정 안 오늘부터 40일 간 입법예고

### 건강검진기관 연속 3회 미흡등급시 건강검진 업무 못해

보건복지부는 건강검진기관(검진기관) 평가 결과 3회 연속 미흡등급을 받을 경우 해당 검진기관이 건강검진 업무를 못하도록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리는 등의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4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오는 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이 그동안 검진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질 향상 요구와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평가 결과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교육 및 자문을 실시한 후 약 6개월 이내에 개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선 교육 및 자문을 실시하고 있지만, 재평가는 별도로 하지 않고 있다.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은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처음 미흡등급 기관은 '경고'→연속해서 미흡등급 기관은 '업무정지 3개월'→연속해서 3회 미흡등급기관은 '지정 취소' 처분을 받는다.

현재는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 교육 및 자문 실시 이외에 행정처분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검진기관의 질 향상을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 검진기관 평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평가를 거부하는 악용사례를 방지하고, 미흡등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수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의도적으로 평가를 거부하는 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현재 1차 업무정지 1개월 →2차 업무정지 2개월→3차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강화해 1차 업무정지 3개월→2차에는 지정 취소토록 했다.

검진기관 평가는 3년 주기로 실시한다. 지난 1차(2012~2014년) 평가에선 85개 기관, 2차(2015~2017년) 평가에선 191개 기관이 미흡등급을 받았다. 3차(2018~2020년) 평가는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병원급 이상(2018~2019년 상반기), 의원급(2019~2020년)으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평가 결과는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평가 후 순차적으로 각 검진기관

에 통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특히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뉴스스



가을로 달려가자 선선한 가을 날씨를 보이는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어린이들이 뛰어놀고 있다.

## 태풍이 남긴 전남 해양쓰레기 8개 시·군 5970t

### 완도 3600t 최대

제19호 태풍 '솔릭'으로 인한 해양쓰레기가 대거 발생해 전남 시군이 수거에 비상이 걸렸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태풍 '솔릭'으로 인한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8개 시군에 5970t이다. 여수 100t, 고흥 320t, 보성 100t, 장흥 270t, 해남 950t, 완도 3600t, 진도 350t, 신

안 280t 등이다. 완도에 쓰레기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은 태풍으로 인해 전북 가두리 양식장 파손이 많은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도는 어촌계와 주민, 공무원, 공공근로 및 군 부대원 등 2000여명을 동원해 쓰레기 수거 작업에 나서고 있다.

도 어장정화선 4척과 해양환경공

단 소속 청정선 2척, 어항협회 어항관리선 4척 등 10척이 투입됐다. 전남도는 완도 3억5000만원, 고흥 장흥 진도도 각 5000만원 등 피해 복구 지원 예비비 5억원을 지원했다.

도 관계자는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를 해당 시군에 독려하는 한편 신속한 처리를 위해 예산을 적기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 광주기독교병원노조 오늘부터 총파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기독교병원지부가 5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

기독교병원지부는 지난 7월부터 사측과 협상을 진행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해 5일 오전 7시를 기점으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4일 밝혔다.

파업에는 응급실과 중환자실 근무자는 제외되며 참여 규모는 휴

직자 포함 500여명이다.

그동안 노조는 임금 7% 인상과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사측과 본교섭·실무교섭 포함 9차례 만났다.

노조측은 임금 총액의 4%까지 제시했지만 사측은 1.9%로 맞서 타결되지 않았다.

노조측은 조정 기간이 이날 자정까지여서 사측과 최대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기독교병원 노조 관계자는 "간호인력의 경우 3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인력이 부족해 업무 강도가 높은 편인데도 사측은 경영난 등의 이유로 노조의 주장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측이 대화 의지가 있다면 조정 기한이 이날까지 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만날 수 있다"며 "마지막 교섭에도 사측이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총파업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 중국 유치원 입학식서 폴댄스 공연 빈축

중국 광둥성 선전시의 한 유치원이 입학식 및 개학식에서 폴댄스 공연을 선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4일 중국 광둥파이뉴스 등은 선전시 바오안구에 있는 신사후이 유치원이 전날 입학식에서 폴댄스를 선보였고, 관련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영상을 보면 짧은 반바지 등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은 무용수들이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춤을 추고 있고 일부 어머니들은 아이들이 춤을 보지 못하도록 행사장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모습이 나온다.

3~6세 어린이 500명과 100명이 넘는 학부모들이 이날 행사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사가 끝난 후 화가 난 학부모는 "이런 유치원에 아이들을 맡길 수 없다"며 "사건도 퇴원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해당 유치원의 원장은 "이날 행사에서는 폴댄스 이외 어린이 율동, 전통춤, 제스댄스 등 공연도 포함됐다"면서 "아이들에게 새로운 형식의 춤을 보여주기 위해 폴댄스를 선보인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해명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커지자 현지 교육 당국이 즉각 개입했다. 바오안구 교육국은 "유치원 입학식에서 폴댄스 공연을 준비한 것은 부적절한 처사"라면서 해당 유치원 원장을 해임했다.

교육국은 또 문제의 유치원이 학부모와 지역사회에 공개 사과할 것을 촉구했고, 지역내 다른 유치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겠다고 약속했다.

## 런던 초등학교, 개학 하루 앞두고 화재

영국 런던의 한 초등학교에서 개학을 하루 앞두고 4일(현지시간) 화재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BBC 방송 등은 이날 오전 4시50분경 런던 대거넘 지역의 로딩 초등학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긴급 보도했다. 3~11세 517명의 아이들이 다니는 이 초등학교는 5일 개학할 예정이었다.

언론에 따르면 당국이 소방관 80명과 소방차 12대를 현장에 파견했다. 경찰 당국은 화재 난 초등학교는 폐쇄됐고, 화재에 따른 사상자는 없다고 밝혔다. 화재로 건물 절반 이상이 타고, 정확한 화재 원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 日, 보호지역서 고래 50마리 이상 불법 사냥

일본이 남극보호지역에서 고래 50마리 이상을 불법적으로 사냥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세계자연기금(WWF)은 일본 고래잡이 배들이 남극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50마리 이상의 밍크고래를 학살했다고 밝혔다.

국제포경(捕鯨)위원회(IWC) 보고서에 의하면 일본어선 3척은 올해 1, 2월 로스해 해양보호구역에서 수십 마리의 밍크고래를 사냥했다.

해당 지역은 밍크고래를 포함한 다양한 고래와 펭귄, 바다표범 등 해양생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역으로 모든 낚시가 금지돼 있다. 하지만 실제적인 통제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불법 고래잡이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의 경우 2014년 국제사법재판소가 '과학 포경'이라는 명목으로 행해지는 고래잡이 행위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2027년까지 남극에서 포경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허가를 내줬다.

일본은 이 '과학 포경'을 통해 올해에만 임신한 암컷 12마리를 포함한 33마리의 밍크고래를 죽인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사기도 했다.

일본은 이번 IWC 회의에서 개체수 증가를 이유로 고래 사냥 규제 완화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규제 완화를 위해) 지금보다 더 나은 시기는 없다"며 "포경 규제는 일종의 환경제국주의"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가디언은 규제 완화를 위한 과거 일본의 노력은 모두 실패했으며, 이번에도 성공할 것 같지 않다고 전했다.

환경보호활동가들은 다른 나라들에 일본의 제안을 거절해야 한다고 계속 촉구해 왔다.

영국환경연구소 소속 클레어 페리는 "만약 일본의 규제 완화 시도가 성공한다면 이는 이반적인 고래잡이인들의 거대한 승리이자 전 세계 고래들의 재앙"이라고 말했다.

뉴스스

#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어는요... 자태치로죽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일반 건강검진

생애전략기 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국가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는 검진기관이 운영하지 않거나,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